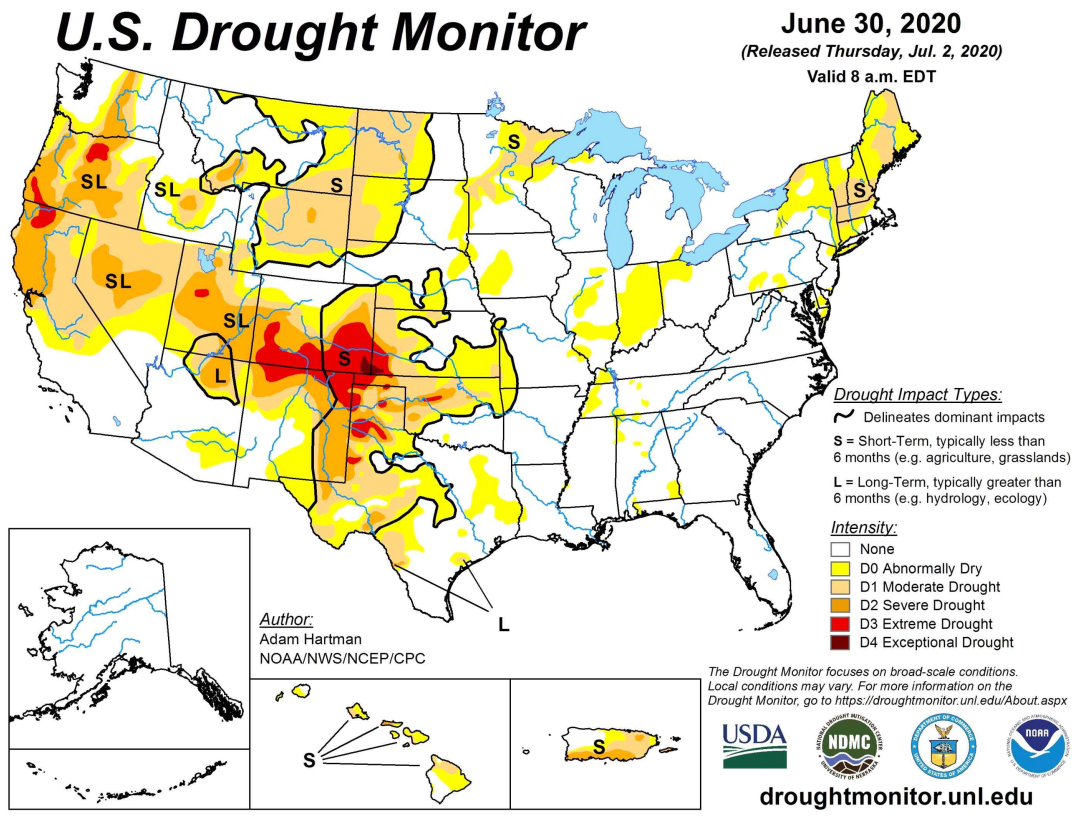


7월 7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27)

□ 미국 기후 현황(6/28~7/4)

매우 따뜻하면서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아래쪽 오대호 지역의 표토 수분을 급격히 감소시켰지만 뉴 잉글랜드에서는 비가 가뭄을 어느 정도 해소시켰다. 더 먼 서쪽으로 중서부 위쪽 및 로키 산맥과 평원의 북쪽 구역에 폭우가 점점이 내려서 춘과 작물들에게 유익을 주었지만 지역에 홍수를 일으켰다. 미시시피 계곡 하부와 주변 지역에도 상당량의 강우가 내려서 벼와 땅콩 같은 여름 작물들에게 대체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해주었다. 반면 평원 중부와 남부에 내린 소나기로는 열이 쌓여가고 있는 방목지, 목초지 및 천수답 여름 작물들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기타 지역으로는, 몬순 순환과 연관된 강우가 남쪽으로 멕시코 전역까지 쪽 머물러 있었던 한편 캘리포니아에서 남서부까지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뻗어 있었다. 서부의 대부분이 건조한 날씨에 덮여 있었지만 평년보다 시원한 조건이 우세했다. 내륙 서부에서 면적이 큰 지구들에서 보고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5~10° F 낮았다. 대조적으로 미국 중부와 동부는 평년 부근 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우세했다. 타코타 주에서부터 위쪽 오대호까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10° F 높았고 평원 남부와 북동부 일부는 평년보다 최소 5° F 이상 높았다.



#### □ 농업 현황 요약(6/29~7/5)

전국 대부분의 중앙 및 동부 지역에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널리 퍼져 있었다. 미시간,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및 위스콘신의 일부 지역들에서는 평년보다 6° F 또는 그 이상 높은 온도가 기록되었다. 반면, 태평양 북서부, 로키 산맥 및 남서부 대부분은 평년보다 시원했다. 아이다호, 몬태나, 네바다 및 오리건의 대부분은 평년보다 6° F 이상 낮은 기온을 보였다. 지난 일주일 간 오대호 지역, 태평양 북서부, 남서부 및 텍사스 대부분은 평년보다 더 건조했지만 미시시피 계곡, 뉴 잉글랜드, 평원 북부 및 로키산맥 북부에는 평균 이상의 비가 내렸다.

#### □ 세계 기후 현황(6/28~7/4)

■ 유럽: 남유럽 일부는 기상 조건이 계속 건조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지만, 대부분의 재배 지역은 날씨가 극히 불안정했다. 일련의 약한 한랭전선이 대륙의 중앙 및 북부 지역을 가로질러 질주하면서 프랑스와 영국 남부에 가벼운 소나기 (1~10 mm)를 뿌려주었다. 프랑스 북부와 영국 남동부 일부는 겨울 작물들에게 악영향을 미친 가뭄과 계속 씨름하고 있었던 반면 프랑스 남부와 서부의 주요 여름 작물 재배지는 알맞은 6월 강우 덕분에 더 나은 모습을 보였다. 먼동쪽은 독일부터 폴란드와 발칸 북부까지 강우가 확장되고 강화되어 (5~5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 영양기(북부) 또는 생식기(남부) 중에 있는 옥수수, 콩 및 해바라기에 대한 전망을 양호 또는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해주었다. 지난 주에 강우가 다뉴브 강 계곡 아래쪽을 우회했지만 습한 봄과 초여름 이후로 수분 공급은 적절한 상태였다. 유럽 대부분의 날씨가 불안정했지만 스페인은 대체로 하늘이 맑아서, 특히 더 따뜻하고 건조한 남쪽 절반에서는 영양기 및 생식기 중에 있는 옥수수, 해바라기 및 면화에 대한 관수 수요가 올라갔다. 남유럽 나머지 지역으로 그리스에는 맑은 날씨가 면화의 발달을 촉진했으나 이탈리아 북부에는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내려서 (10~3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 포 강 계곡 아래쪽의 수분 부족을 완화해주었다. 프랑스 서부에서 북쪽으로 잉글랜드와 스칸디나비아까지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2° C 낮았으나 남유럽과 동유럽에서는 스트레스 성 열은 없으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여름 작물을 성숙기로 재촉했다.



■ 구소련(서부): 계절을 벗어난 따뜻한 날씨에 변동성이 높기는 하지만 추가 강우가 동반하여 여름 작물들이 생식기로 접근하거나 진입하였다. 폴도바와 중앙 우크라이나에서부터 러시아의 남부 및 볼가 지역까지 흑해 지역에 있는 옥수수, 해바라기 및 콩의 주요 재배 지역에 내린 소나기의 강우량은 1 mm 미만에서 지역적으로 50 mm 이상이었다. 수분 공급량이 여름 작물들에게 대체로 유익했던 가운데서 인근의 러시아 서중앙부 (특히 주로 중앙 남부 지구에 있는 로스토프 오블라스트)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북중부와 동부에 단기 건조 (30일 강우량이 평년의 50% 미만)가 발달했다. 더욱이, 같은 경작지의 많은 곳들에서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4° C 높았으며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부터 동쪽으로 러시아까지 낮 최고 기온이 중간 및 높은 섭씨 30도대까지 밀고 올라갔다. 선선했던 5월 이후 최근에 계절을 벗어날 정도로 따뜻했던 기간 덕분에 남러시아에서 옥수수는 평년과 대등한 수준으로 생식기에 진입했고 우크라이나 북중부에서는 옥수수가 후기 영양기에 있었다. 향후 몇 주 동안 극심한 폭염 (최고 기온이 35° C 이상)이 올 경우 옥수수 수확량 전망에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인데, 이미 남러시아의 스타프로폴, 크라스노다르 및 로스토프 오블라스트에서는 이미 이번 달의 첫 4일 연속 섭씨 35도의 폭염을 기록했다 (최고 수치는 39° C). 일반적으로 해바라기는 최대 39° C까지 심각한 수확량 손실없이 견딜 수 있는데 주가 끝날 무렵에 개화기에 다다르고 있었다.

■ 동아시아: 동중국 전역 대부분에 거의 매일 소나기가 내려서 여름 작물들에게 물이 잘 공급되었다. 북중국 평원부터 양쯔 계곡의 남부 (남부 깊은 곳 일부에는 건조 포켓 하나가 발생했다)까지 총강우량 25~100 mm (또는 그 이상)의 비가 내렸다. 한편, 북동부에서는 지난 주의 호우에 이어서 더 건조한 날씨가 보고되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우량은 25 mm 미만이었다. 그 건조가 헤이룽장 성과 내몽골 인근 성들 및 길림 서부에 있는 옥수수와 콩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라오닝 성에서 가뭄 상태가 확대되었다. 중국 서쪽 끝 (신장)에서는 지난 2~3주 동안 기온이 계속 평균 이하에 머물러 있어서 면화의 발달이 늦춰졌다. 그밖에 한반도와 일본은 강우 (25~10 mm 또는 그 이상)가 벼를 위한 수분 공급을 유지 또는 개선시켰다.

■ 호주: 서호주에 내린 광범위한 소나기 (10~2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영양기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들에게 더욱 유익을 주어서 이른 철 작물 전망을 대체로 양호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와 유사하게 호주 남동부에 내린 산발적인 소나기 (5~2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밀 벨트의 남쪽 끝단에 내려서 밀, 보리 및 캐놀라의 발달을 도왔다. 그 밖에 호주의 남부와 동부에는 고립적으로 내린 소나기 (대체로 5 mm 미만)가 영양기 겨울 작물들에게 추가 수분을 거의 공급하지 못했다. 이 지역들에는 더 많은 비가 내려야 초기 수확량 전망을 유지하면서 심각하고 장기적인 가뭄에서 더 회복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밀 벨트 전체에서 평균 기온이 평년 수준의 1° C 이내에 있어서 겨울 작물 발달에 유리했다.

■ 아르헨티나: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소나기로 뒤덮이면서 출현 중인 겨울 밀과 보리에 대해서 대체로 양호한 전망을 유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구역에 내린 강우 총량은 5~25 mm였고 더 동쪽에 있는 농업 지역들에는 더 많은 양을 기록했다. 하지만 코르도바와 산타페에서부터 북쪽으로, 3월 이후로 평년보다 더 건조한 경향을 보여왔던 지역들은 더 건조한 상태가 지속됐다. 전국 평균 기온이 평년 부근이나 평년보다 낮아서, 주요 농업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의 낮은 섭씨 10도대에서 차코와 프로모사의 높은 20도대까지의 범위 안에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과 면화가 7월 2일 기준으로 각각 86% 및 96% 수확되었다. 서부 생산 지역들에서 건조 때문에 지체되었다는 보고도 있었지만 밀 파종 속도는 여전히 작년보다 빨랐다 (작년 66% 대비 75% 파종). 보리는 67% 파종되어 작년 속도보다 14 포인트 앞섰다.

■ 브라질: 가볍거나 중간 수준의 소나기가 내려서 브라질에서 선도적인 농업생산 주들인, 파라나와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출현 중이거나 영양기에 있는 밀에 대한 전망을 대체로 양호하게 유지했다. 총 강우량은 5~25 mm 또는 그 이상이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 최소 10 mm 이상 내렸다. 비가 때때로 내리면서 온화한 날씨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4° C 이하)를 동반하여 리오 그란데 도 술 대부분에서 낮 최고 기온이 20° C로 올라가지 못했다. 서리는, 파라나 남동부와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대체로 전통적으로 더 선선한 곳들에만 내려서 미성숙한 2차 작물 옥수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2차 작물 옥수수가 6월 29일 기준으로 5% 수확되었고 남은 작물의 51%는 성숙기에 있었다. 밀은 94 % 파종되었다. 7월 2일 현재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밀은 87% 파종되었다. 그밖에 브라질의 중부 및 북동부 내륙에서 화창하고 대체로 따뜻한 날씨가 동부 해안을 따라 대체로 가벼운 소나기 (대체로 10 mm 이하)를 동반하면서 옥수수과 면화를 빠르게 발달시켰다. 마토 그로소에서는 7월 3일 현재 2차 작물 옥수수가 46% 수확되었다고 보고되어 작년보다 15 포인트 뒤쳐진 반면 면화는 2% 수확되어 작년 (4%)보다 살짝 뒤쳐져 있었다.